

# 그림자극으로 만나는 공감각적 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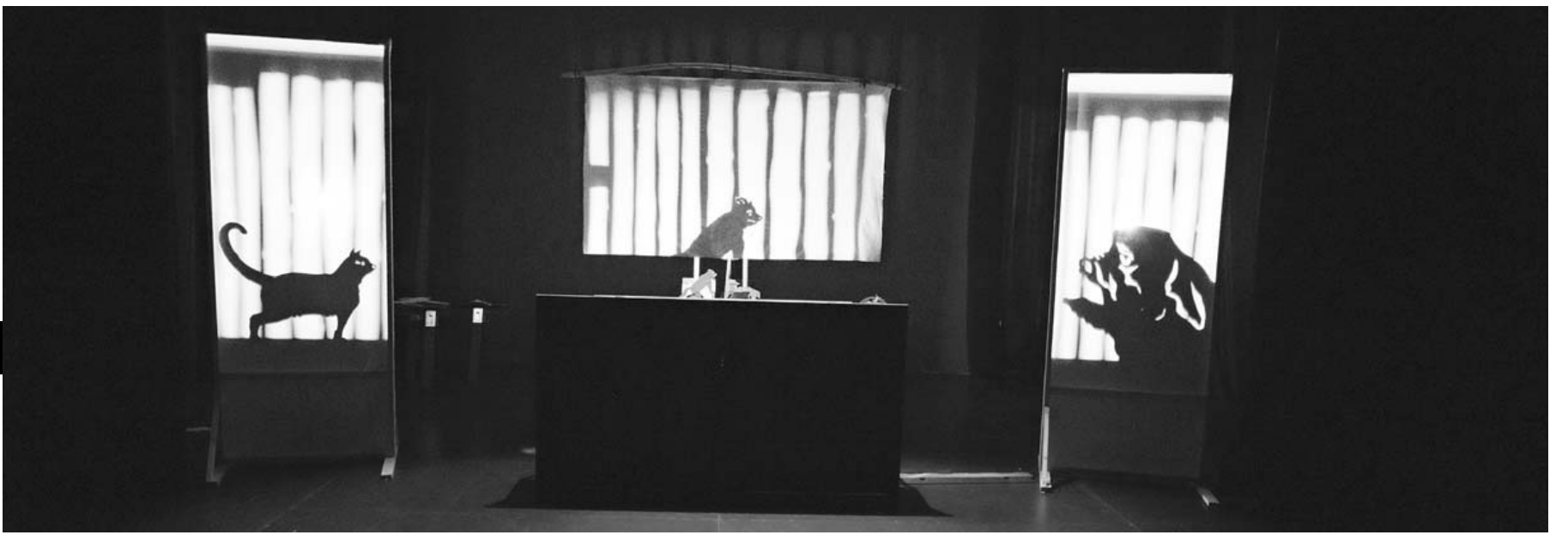
ACC재단, 연극 '늙은 개' 14-15일 어린이극장서 첫선

여름날 아침, 늙은 개 누렁이가 시골집 마당에서 눈을 뜬다. 누렁이는 할머니가 집 안에 없자 할머니를 찾아 나선다. 아침마다 밥을 얻어먹던 고양이 까망이도 못 이기는 척 누렁이를 따라간다. 누렁이는 할머니와 견뎌 골목길을 지나 고구마밭, 바닷가, 마을회관 등 할머니가 게실 만한 곳을 찾아 헤매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는다. 곳곳에 보이는 흔적들은 할머니가 변덕이는 차를 타고 큰 길을 따라 갔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누렁이는 할머니를 찾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큰 길을 따라 가기로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개장수까지 올라가미를 들고 뒤를 쫓는다. 과연 누렁이와 까망이는 무사히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



그림자극 '늙은 개' 공연 모습

(ACC재단 제공)



주인 할머니 찾아 떠나는  
누렁이의 여정 그려내  
따뜻한 사랑의 감성 전달

빛과 그림자 조화 통한  
환상적 이미지  
어린이 호기심·상상력 자극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ACC 어린이극장 공동기획 작품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공연을 8월부터 12월 까지 ACC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 무대에 올린다.

그 첫 번째 작품으로 여름방학 기간인 오는 14-15일 이들 동안 늙은 개 누렁이가 주인 할머니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그린 '극단 나무'의 그림자극 '늙은 개'를 선보인다.

이 작품은 그림자가 갖고 있는 서사적이고 환상적인 이미지로 표현되며, 그림자와 배우의 연기를 통해 이야기가 리듬감 있게 펼쳐진다.

그림자극에 담긴 다채롭고 매력적인 장면을 통해 반려동물이 가지는 따뜻한

사랑의 감정을 보다 입체적이고 공감각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2006년 창단한 '극단 나무'는 '세계의 중심에 어린이가 있다'는 모티브로 인형극·가면극·연극놀이·마임·거리공연 등 다양한 장르를 창작하는 전문 극단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작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그림자극 '늙은 개'는 14-15일 각 3회(11시, 14시, 16시30분) 총 6회 공연하며, 36개월 이상 관람 가능하다.

관람권은 전석 1만5천원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한편 극장 및 어린이공연 활성화를 위해 ACC재단과 공연단체가 함께 추진하

는 'ACC어린이극장 공동기획 프로그램'은 지난 6월 작품공모를 통해 4개 작품을 선정했다. 이번 늙은 개를 시작으로 ▲10월1-2일 (사)전통연희놀이연구소의 전통연희 '개똥이와 무등산호랑이' ▲10월29-30일 아트컴퍼니 행복자의 국악 뮤지컬 '깨비 친구 삼삼이' ▲12월10-11일 극단 북새통의 음악극 '행복한 왕자'를 차례로 선보인다.

한편, ACC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소재로 다양한 놀이와 체험·예술적 창작활동을 통해 어린이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어린이 문화발전소다. /최명진기자

## 포스트 코로나시대, 패러다임의 대전환

광주문화재단, 김누리 교수 초청 '빛고을융복합엑처콘서트'

포스트 코로나시대, 우리의 삶과 자본주의를 돌아볼 수 있는 강연이 마련됐다.

광주문화재단은 11일 오후 7시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김누리(사진) 교수를 초빙해 '포스트 코로나시대,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올해 다섯 번째 '빛고을융복합엑처콘서트'를 연다.

이번 엑처콘서트는 '자본주의를 넘어 라이프즘으로'라는 부제를 가진다. '라이프즘'은 인간의 삶과 생존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생태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뜻한다.

이날 강연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인식을 전환 ▲인간생존을 위한 자본주의의 라이프즘 전환 필요성 ▲라이프즘의 정의, 그리고 자본주의와 인간 삶의 관계 등을 다룬다.

강사로 나선 김누리 교수는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및 동 대학원 독일 유럽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독어독문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알레고리와 역사(퀸터 그라스의 문학과 사상)', '우리의 불



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다)' 등이 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빛고을융복합엑처콘서트'는 예술크강의(Lecture) 등으로 흥

미롭게 구성해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하는 엑처콘서트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두 번째 목요일(9월은 세 번째)에 개최되고 있다.

한편, '빛고을융복합엑처콘서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방역 지침 준수에 따라 선착순 100명 이하로 관람 인원을 제한하며, 마스크 미착용 시 관람이 제한된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전화로 사전 예약할 수 있다. 문의 062-670-7926. /최명진기자

##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제24회 한국청소년영화제 작품 공모

15일부터 9월18일까지... 단편영화·다큐·애니메이션 등

(사)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한국청소년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9월18일까지 제24회 한국청소년영화제 영상작품을 공모 접수한다.

공모 부문은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영상작품으로 런닝타임은 30분 이내다. 작품 주

제는 자유이며, 지난해 3월 이후 청소년이 기획하고 제작한 작품이면 된다. 단타 영화제 수상작 및 TV에 방영된 작품은 제외된다.

응모 자격은 초·중·고등학생(대안학교 포함) 및 만 18세 이하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포함)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출품 희망자는 한국청소년영화제 사무국 다음 카페 공지사항이나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와 동의서를 다운로드 받아 출품작, 작품 스틸컷 3장, 스톱 사진 5장과 함께 한국청소년영화제 사무국 이메일(macji\_filmm@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작품 심사는 학계, 영화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단(50%)과 청소년

심사단(50%)이 독창성·작품성·발전가능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예선 결과는 오는 9월30일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홈페이지에, 본선 결과는 10월23일 한국청소년영화제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시상은 광주와 전남·전북 지역 영화인재 육성을 위해 전국권역과 전라권역으로 나눈다. 대상 1편(상금 200만원)은 전국권역과 전라권역을 통합 선정하며, 권역별로 최우수상 1편(각 100만원), 우수상 1편(각 50만원), 장려상 3편(각 20만원)을 시상한다. /최명진기자



## 소리꾼 이숙영의 수궁가 완창 공연

오늘 빛고을국악전수관서

소리꾼 이숙영(사진)의 수궁가 완창 무대가 펼쳐진다.

광주 빛고을국악전수관은 11일 오후 5시 목요일국악만마당 공연에 소리꾼 이숙영을 초청해 판소리 보성제 수궁가 완창 공연을 개최한다.

판소리 보성제는 조선 후기 8명창에 속하는 명창 박유전이 전한 서편제 판소리에 조선시대 명창 김세종이 불렀다는 동편제 춘향가와 중고제를 융합시켜 전

승되고 있다. 현재 전승되는 판소리 가운데 음악적·문학적으로 정교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평이다.

박유전 명창으로부터 정재근·정영민·정권진 명창에게 이어졌으며, 활동 지역이 보성이라 '보성제'라 이름 붙였다. 이후 정권진, 조성현, 성정순, 성우향 등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와 박옥심, 안채봉, 이임례 등 지방문화재 명창을 배출했다.

이날 부를 수궁가는 조성현에게 이어져 현재 국가무형유산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인 이숙영에게 전승된 수궁

가로 이번 공연에서는 전국 완창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숙영은 전남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중앙대 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했으며, (사)한국전통음악회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날 공연에 함께할 고수는 청암고법 전국대회 명고부 최우수상 수상자인 한사랑예술단 박상호 단장이 맡는다.

공연은 유튜브 채널 빛고을국악전수관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접속 초대 공연이며, 자세한 내용은 문화예술과 국악전수관(062-350-45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진기자

www.e-dk.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